

리솜리조트, 수제맥주 브루어리 협업 '리솜맥주' 출시

리솜리조트를 운영하는 호반호텔앤리조트가 인기 수제맥주 브랜드인 아트몬스터, 라인도이치 브루어리와 협약을 맺고 각 지역의 리솜리조트를 연상시키는 맥주를 출시했다. 독일식 정통 밀 맥주 레스트리 바이젠을 비롯해 포레스트 페일 에일, 아일랜드 IPA, 스몰라스 펄스너, 퍼시픽 골든 에일 등 5종이다.



사면 후 첫 행보로 '상생과 국익' 꺼내든 신동빈 롯데 회장

“중기 해외판로 지원…부산엑스포 유치 박차”

신동빈 롯데 회장이 사면 후 첫 행보로 '상생'과 '국익'을 꺼내들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사업과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밝힌 “국내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사회적 역할 강화의 의지를 실천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롯데, 美·獨서 브랜드 엑스포 개최
국내 우수 중소기업 200개사 협업
수출상담회, K-푸드·뷰티쇼 진행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활동도 병행

●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열어

롯데는 유통 6개사(홈쇼핑·백화점·마트·면세점·하이마트·코리아세븐)를 필두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독일과 미국에서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연다. 국내 우수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이 목표로, 신 회장이 5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롯데지주 및 유통 관련 계열사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과 협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후 열리는 그룹 차원의 첫 상생 활동이다. 참가 기업 수만 200개사에 이른다. 6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아 롯데 유통 6개사의 협력 중소기업 100개사와 미거래 국내 우수 중소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

먼저 ‘IFA 2022(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에 참가해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진행한다. 9월 5, 6일 IFA 글로벌 마켓에 우수 중소기업 50개사가 참여하는 통합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상품 판촉전 및 다국적 바이어와 함께하는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다. IFA 글로벌 마켓은 유럽에 상표 등



신동빈 롯데 회장이 사면 후 첫 행보로 상생과 국익을 꺼내들었다. 7월 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박람회 유치 기원 ‘플라이 투 월드 엑스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가수 정지훈(비),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위 사진 왼쪽부터). IFA 글로벌 마켓의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통합 전시 부스 조감도.

사진제공 | 롯데

록이 되지 않은 신규 진출 기업을 위한 전시관으로, 제조·유통·수입업체들의 B2B(기업 간 거래) 소싱 플랫폼으로 활용된다.

또한 9월 20, 21일 미국 뉴욕 맨해튼 남동부에 위치한 피어17에서 중소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두 번째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연다. 상품 판촉전과 수출 상담회뿐 아니라 유명 셰프, 아티스트의 K-푸드 및 K-뷰티쇼를 통해 K-브랜드와 한류 콘텐츠를 현지에 알릴 예정이다. 행사 기간 현지 엑스포에 직접 참가하지 못하는 나머지 국내 중소기업사를 위해 다국적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신 회장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좋은 중소기업이 국내에도 많이 있다”며 “이들의 해

외 판로 개척과 확대를 지속 지원하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

신 회장을 중심으로 ‘롯데그룹 유치지원 TF’를 구성하는 등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박차를 가한다. 독일과 미국에서 열리는 두 번의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기간에 박람회 홍보 영상과 유치 필요성을 담은 브로셔를 활용한 유치 지원 활동을 병행한다.

신 회장은 6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OGF(소비재 업계 글로벌 협의체) 글로벌 서밋의 롯데 부스에서 글로벌 소비재 경영진을 비롯한 포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글로벌 그룹 최고 경영자들과 가진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부산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유치 지원에 힘을 실었다.

또 6월 4일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G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2 롯데 오픈’에 마련된 박람회 포토월, 7월 13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박람회 유치 기원 ‘플라이 투 월드 엑스포’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박람회 유치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신 회장은 “글로벌 전시 역량뿐 아니라 풍부한 관광자원,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문화까지 갖춘 부산이 월드 박람회 개최의 최적지라고 생각한다”며 “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LG, 협력사 납품대금 9500억 조기지급

LG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주요 계열사는 총 9500억 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대금을 예정일보다 최대 12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대금 결제,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중소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LG는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들을 돕기 위해 1조 3000억 원 규모의 납품대금을 예정보다 앞당겨 지급한 바 있다.



전자랜드, 가전제품 판매 통한 기부 캠페인

전자랜드가 9월 18일까지 가전제품 판매를 통한 기부 캠페인(사진)을 진행한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재민 등 취약계층을 돕고, 고객에게 의미 있는 소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고객이 전자랜드에서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건당 일정 금액을 적립해, 캠페인 종료 후 누적 금액만큼의 가전제품을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회사 측은 “향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치 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성 고려사이버대 총장, 원격대학협의회장 선임



김진성 고려사이버대 총장(68·사진)이 25일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임돼 다음달 1일 취임한다. 임기는 2년. 김 신임 회장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대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해 대외협력처장, 총무처장, 융복합의료전전문센터 연구원 원장, 하나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당뇨병 환자에게 안전한 임플란트 시술은? “무절개 원가이드 시술, 출혈·통증 최소화”

아직까지 임플란트 시술을 적용하기 어려울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만성질환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출혈, 감염 등의 위험이 일반인 대비 더 높기 때문이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여 임플란트 시술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약한 면역력, 회복 능력 부족 등에 의해 보다 더 심층적인 시술을 필요로 한다. 당뇨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축, 레이저힐링 및 철저한 소독 실시 등의 여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최근에는 출혈 및 통증을 최소화하여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고령층 환자들의 수술 부담을 낮추는 무절개 원가이드 임플란트가 등장해 널리 적용되고 있다. 절개 및 봉합 과정이 없어 수술 시간 단축 및 수술 후 회복 시 통증 최소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컴퓨터로 미리 수술 위치를 정하고 해당 위치에 식립하기 때문에 인접치 및 신경 등의 손상 위험이 적다. 따라서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 뿐 아니라 치아 탈락 개수가 많아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잇몸뼈의 소실이 두드러지는 경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첨단 장비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수술 방식 이기에 술자 입장에서 난이도가 낮은 수술에 속한다. 하지만 개인 별 맞춤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수동 치과 우리치과 강일남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새로운 패션 경험 제공”…신세계百貨 강남점, 영패션 전문관 리뉴얼

W컨셉·렉토 등 14개 국내 브랜드 입점 팝업존에서 차별화된 최신 상품 공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26일 5층 영패션 전문관을 리뉴얼했다.

일상 속 레저, 여행, 쇼핑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트렌디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25~35세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했다. 매장 분위기는 부드러운 곡선형 디자인으로, 옷을 한 곳에서 직접 만져보고 입어볼 수 있도록 매장을 구성해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W컨셉, 렉토, 샵아모네토 등 온·오프라인에서 입점된 14개 국내 패션 브랜드를 소개한다. 신세계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W컨셉의 경우, 경기점·대구점에 이은 신세계백화점 내 세 번째 오프라인 매장이자, 온라인에 입점한 7500여 개 브랜드 중 20여 개를 선별해 선보이며, 가을·겨울 신



리뉴얼 오픈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5층 영패션 전문관.

사진제공 | 신세계백화점

상품은 온라인보다 먼저 만날 수 있다.

렉토는 정지연 디자이너가 이끄는 패션 브랜드로, 오버사이즈 셔츠 등 중성적이면서도 편안한 느낌의 옷에 여성스러움을 가미한 스타일이 특징이다. 젊고 트렌디한 여성을 겨냥한 브랜드인 샵아모네토는 60여 개 해외 브랜드 중심의 편집샵 형태로 운영한다.

최신 인기 패션 브랜드를 소개하는 팝업존 ‘뉴스테이지’도 만들었다. 1, 2주 간격으로 신세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차별화 상품을 공개하며, 스토리까지 담아 고객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다. 최문열 신세계백화점 패션담당 상무는 “향후 새로운 핵심 소비계층을 잡기 위해 감도 높은 패션 브랜드를 유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농심, 공식 온라인몰 농심몰 오픈

농심이 30일 자사 공식 온라인몰 농심몰(사진)을 오픈한다. 주요 제품 판매는 물론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과 재미를 주는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제품의 경우 사전예약 판매를 통해 정식 출시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원하는 사진과 문구를 제품 패키지에 인쇄하는 ‘농꾸(농심 꾸미기)’로 나만의 특별한 제품을 제공한다. 우선 너구리컵과 닭다리스낵에 적용하고, 향후 적용 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다.